

“교육생 12명 중 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글 유인중 편집부 / 사진제공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는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취업준비·창업 컨설팅·리더십 교육과 자활근로사업단의 나들이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취업준비 교육(2018. 2)과 부품을 조립하는 두드림사업단의 서울 인사동 나들이(2018. 3) 모습.

갑자기 남편이 사망한 유연숙(가명·43) 씨는 고등학생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됐다. 사회생활 경험이 없던 그녀는 지난 2월 부천시 중동에 자리한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를 찾았다. 센터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 교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불안감 등 약간의 우울증상을 호소한 그녀에게 센터는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을 받도록 추천해준 한편 자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자립계획서 작성법 등의 집단교육을 받으며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던 그녀는 센터 산하의 음식을 만드는 자활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다가 지난 4월 어느 한의원의 안내직원으로 취업했다. 자활 교육을 받던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는 그림으로 손수건을 그렸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눈물을 닦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이의 슬픔을 위로해 주겠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아산재단의 사회복지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2017년 7월부터 40~60대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자활 참여주민의 근로공동체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프로젝트는 크게 정서적·경제적 자활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서 교육에는 자기소개서·자신에 대한 격려편지·희망서약서 작성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제적 자활은 취업준비·창업 컨설팅·리더십 교육

과 자활근로사업단 나들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센터의 김선경(26) 사례관리팀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은 자존감이 향상됐고, 자활 의지도 강화됐다. 2017년 7월 이후 교육 참여자의 54%가 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고, 그중 70%가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최종 교육과정을 수료한 12명 중 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성공률 58%라는 뚜렷한 사업성과가 나타난 것은 2년째 지원해주고 있는 아산재단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센터는 2000년 8월에 설립됐다. 청소·급식·택배 등 14개 자활근로사업단과 7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팀·자활사업팀·사회서비스팀 등 4개 팀에서 박혜준 센터장을 포함해 15명이 근무 중이다. 아산재단은 2017년 사회복지 협력기관 132곳 가운데 세 곳을 사업수행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센터가 그중 한 곳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500여 사회복지단체에 5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